

# -(으)ㄴ 채로

~한 채로 — 그 상태를 바꾸지 않고

어떤 상태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채는 '그 상태 그대로'라는 뜻이며, 그 상태는 대개 원래 풀었어야 하는 것입니다.

## ■ 결합 방법

| 어간 종류      | 형태      | 예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
| 모음으로 끝남    | -ㄴ 채로   | 켜다 → 켜 채로   |
| 자음으로 끝남    | -은 채로   | 신다 → 신은 채로  |
| ㄹ로 끝남      | ㄹ 탈락    | 열다 → 연 채로   |
| 로 없이       | -(으)ㄴ 채 | 앉은 채        |
| 쓰지 않는 형태   | -는 채로   | 상태가 완료되어야 함 |
| 중립적인 동시 동작 | -(으)면서  | 앉아서 / 앉으면서  |

## ■ 언제 쓰나요

이 형태는 과거 관형형을 쓰므로 ㄹ이 탈락합니다. 열다는 연 채로.가 됩니다. 로는 생략할 수 있어 채만 써도 됩니다.

앞의 동작은 이미 끝났고 그 결과가 뒤의 동작이 일어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: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왔어요(신발을 신은 상태 그대로 들어왔다). 그래서 과거 관형형만 쓰고 -는은 쓰지 않습니다.

대개 비판적이거나 이례적인 느낌을 줍니다. 원래 바뀌어 했던 상태, 예를 들어 신발을 신은 채, 창문을 연 채, 불을 켜 채 잠든 경우를 나타냅니다. 중립적인 동시 동작은 다음 표현을 씁니다: -(으)면서.

두 절은 주어가 같아야 하고, 동사는 지속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. 가다 같은 동사는 남는 상태가 없으므로 간 채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.

## ■ 예문

- 1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왔어요.
- 2 불을 켜 채로 잠이 들어있어요.
- 3 창문을 연 채로 나갔어요.
- 4 눈을 감은 채로 음악을 들었어요.
- 5 코트를 입은 채 앉아 있었어요.
- 6 아무 말도 못 한 채로 헤어졌어요.

## ■ 비교

### -(으)면서

-(으)면서는 두 동작이 함께 진행되고, -(으)ㄴ 채로는 끝난 한 동작의 결과가 다른 동작 동안 유지됩니다.

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해요. (두 가지를 동시에) / 눈을 감은 채로 들었어요. (계속 눈을 감은 상태로)

### -아/어 있다

-아/어 있다는 결과 상태 자체를 핵심으로 서술하고, -(으)ㄴ 채로는 다른 일이 일어나는 동안의 배경으로 둡니다.

창문이 열려 있어요. (창문이 열린 상태다) / 창문을 연 채로 나갔어요. (창문을 열어 둔 상태로 나갔다)

### -아/어 놓고

-아/어 놓고는 행위자가 드러나며 의도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고, -(으)ㄴ 채로는 남아 있던 상태를 전할 뿐입니다.

창문을 열어 놓고 나갔어요. (일부러 열어 두었다) / 연 채로 나갔어요. (열린 상태 그대로 나갔다)

## ■ 주의

✗ 신발을 신는 채로 들어왔어요.

○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왔어요.

상태는 뒤의 동작 전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관형형은 항상 과거입니다. -는 채로 라는 형태는 없습니다.

✗ 창문을 열은 채로 나갔어요.

○ 창문을 연 채로 나갔어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연 문, 만든 음식처럼 -(으)ㄴ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
✗ 학교에 간 채로 공부했어요.

○ 학교에 가서 공부했어요.

가다는 유지되는 상태를 남기지 않습니다. 이 구문에는 신다, 열다, 켜다, 앉다처럼 결과가 지속될 수 있는 동사가 필요합니다.